

진로와 직업 독후감

학번: 3112 이름: 송정아

책 제목: 인간 정서와 AI

저자: 강정석, 김지호, 박종구, 부수현, 성용준, 안정용

도서 선정 이유: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한 후, AI 기술이 사람들의 감정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에 큰 흥미를 느꼈다. 특히 AI 스피커나 챗봇과 같은 기술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교감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인간 정서와 AI』라는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내용:

『인간 정서와 AI』는 AI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측면을 연구한 책으로, AI 기술이 인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AI 스피커를 다룬 내용이었다. 책에는 외로운 사람일수록 AI 스피커에 말을 걸고, 정서적 위안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AI가 사람의 감정을 읽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했지만, 동시에 AI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인공지능과의 교감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학습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역시 비슷한 문제로 단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책에서는 이처럼 AI의 잘못된 발언이 AI 스스로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차별적 언행을 입력했고, AI가 이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결국 AI의 윤리 문제는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AI가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대해야 한다. AI는 그저 감정을 흉내 낼 뿐이며,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진심으로 공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AI 기술의 편리함에만 익숙해져, 그 이면의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AI는 결코 완벽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편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 앞으로 AI 기술이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자의 윤리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사용자들 또한 AI와의 교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영향과 책임까지 고민하며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